

정청래 대표 '1인1표제' 재추진…리더십 다시 시험대

민주 최고위 만장일치 결정…이언주·강득구·황명선 문제 제기
“정 대표, 차기 전대 출마시 수혜”…8월 전대 앞 비당권파 견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최고위에 자신과 가까운 당권파 인사 2명이 합류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1인1표제 재추진'에 나서자마자 비당권파가 일제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도부 내 뚜렷한 균열이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에서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최고위에서 비공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당권파인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 원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연히 최고위 구성원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1인1표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9명의 최고위원 중 정 대표 본인, 정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지냈던 최고위원 2명(문정복·이성윤), 정 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 2명 등 5명이 적극 찬성한 반면 나머지 4명은 사실상 반대(조건부 찬성) 내지 신중·중립 입장장을 보이면서 계파 대립이 표면화된 것이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 원이 정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1인1표제 도입은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며 이에 관한 문제를 당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목받았다. 그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1인1표제를 반대해왔다.

이에 1인1표제를 둘러싼 최고위 내 균열이 여전

내 세력 분화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1인1표제를 둘러싼 대립이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차기 당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대결 구도로 치환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다.

당내에는 1인1표제로 당내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커질 경우 권리당원이 주요 지지기반인 정 대표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견이 적지 않다.

정 대표에 비판적인 한 의원은 18일 언론과 통화에서 “다른 협안이 많은데 굳이 1인1표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의도”라며 “다음 주 당내 논쟁이 불붙으면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당원 주권주의 측면에서 1인1표제의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 대표가 이번에는 도입에 성공할 것인란 전망도 같이나온다.

앞서 지난 연말에는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당내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 대표와 가까운 양문석 의원은 16일 밤 정 대표와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의원이 만나 서로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작년 전대에서 당권을 놓고 경쟁한 박 의원과 함께 한 사진을 통해 우회적으로 정 대표 자신의 '원팀'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하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강원지사 출마 위해 정무수석 사퇴

靑 참모진 개편…김병욱 정무비서관·김남준 대변인 조만간 사직

우수석 사직은 지선을 앞둔 청와대 참모진 개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정무수석의 후임자로 홍전 원내대표가 합류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사직 후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수석은 “아직 확정됐다고 밝히기 어렵다”며 “정무수석실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빠지면 정무 기능에 손실이 올 수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을 필두로 다수의 비서관 및 행정관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과 맞물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청 차출론, 김용범 정책실장의 호남 차출론에 주목하는 시선도 여전하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청장 출마 준비 시의원 '당원 자격 정지'

민주 시의원 4명, 불법 당원 모집 징계 처분…3명은 '당직 자격 정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위법한 방식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광주시의원 4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구청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A의원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징계를 받아 향후 정치적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지역 정기예배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회부된 광주시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A의원이 모집한 당원 중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부적절

한 사례가 20건 이상 확인됐다고 판단, '당원 자격 정지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정당에서 '당원 자격 정지'는 당직을 박탈하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당현·당규상 최근 3년 이내에 당원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이력은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및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또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A의원은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경선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A의원은 “문제가 된 당원 명단은 지원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중앙당 재심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의 시의원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윤리심판원은 이들의 불법 모집 사례가 20건 이하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당원 자격 정지’를 내렸다.

B·C 의원은 당직 정지 1개월, D 의원은 당직 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직 정지는 당내 위원장 등 특정 직책을 맡는 것만 제한될 뿐, 당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징계에 속한다. 이들 3명은 징계 결과를 수용하고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향후 당원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선인 기자 sunin@

함께하는
100년 농협



NH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콰!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콰!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콰!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H페이 온라인 결제 1%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기한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한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 526-0222~3
치평지점 062) 381-8212~3
상촌지점 062) 381-6551~2
화정지점 062) 372-0421~3

유동지점 062) 512-1984~5
동립지점 062) 513-8521~3
운암지점 062) 527-3295~6
운천지점 062) 371-2772~3

유덕지점 062) 373-3235~6
동운지점 062) 528-2640~2
버들지점 062) 381-1971~2
상무동지점 062) 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 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 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 361-4472~4
기야자동차지점 062) 385-4977~8

동림아나로지점 062) 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 364-8400
유덕아나로마트 062) 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 511-2901~3